

2007. 3. 19 제163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7. 3. 19 제163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도쿄都의 도시형 수해대책

도시경영·경제

1. 2010년까지 1000만 해외관광객 유치 (상해)
2. 시정 질의응답 행사 개최 (런던)
3. 대중교통 이용 소요시간과 실업자 수를 지도에 표시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4. 온라인 세무신고 프로그램 홍보 (베를린)
5. 해외기업 유치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 (도쿄)
6. 올림픽 준비 캠페인 실시 및 자원봉사자 모집 (북경)

디지털도시

7.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입법 참여 (북경)

복지·문화

8. 영화를 통한 도시 홍보 (런던)
9. 노인이 직접 참여하는 노인정책 구현 (베를린)
10. 레스토랑 학교 통해 교육·취업 기회 제공 (브라질 상파울루市)

목 차

11. 학교 외 교육에 연 6억여 원 지원 (베를린)
12. 기초건강진단 무료화 확대 (일본 시가縣 고가市)
13. 장례식장 유적이 종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파리)
14. 학교와 스포츠단체의 협력 프로그램 지원 강화 (베를린)

도시환경

15. 제2세대 바이오 디젤 연료 실용화 추진 (도쿄)
16. 전력 손실이 많은 형광등 교체 (샌프란시스코)
17. 광공해를 막는 도로조명 계획 (영국)
18. 기후변화 실행계획 발표 (런던)

도시교통

19. 무료자전거 이용서비스 제공 (파리)
20. 주차공간을 찾는 운전자로 교통체증 유발 (뉴욕)
21. 강변도로 급행차로에 통행료 부과 (브라질 상파울루市)
22. '자동차 공용' 사업자 모집 (도쿄)
23. 자전거 번호판 부착 의무화 (브라질 로레나市)
24. 도심 혼잡통행료 확대 시행 (런던)

도시계획·건설·주택

25. 아프리카 이민자 정착촌 재개발 추진 (뉴욕)
26. 다운타운 재개발 프로젝트 승인 (로스앤젤레스)

[벤치마킹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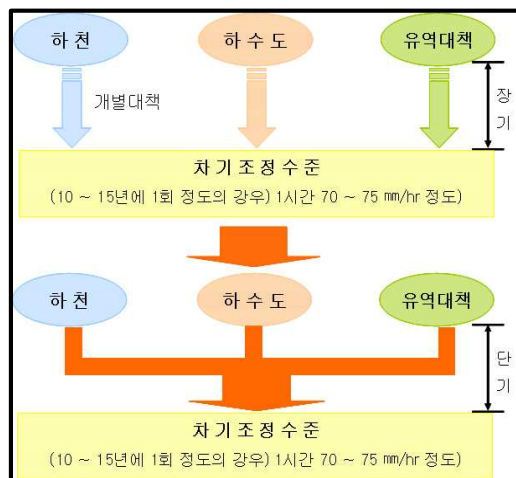
도쿄都의 도시형 수해대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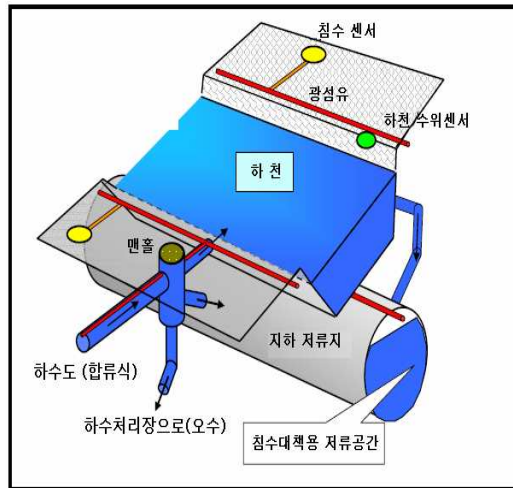
○ 도쿄都是 현 정비수준을 증가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적(hardware) 대책과 비구조적(software) 대책을 종합적으로 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형 수해대책을 2001년에 수립함.

- 구조적 대책

- 하천은 침수 현황 등을 기초로 하도(河道)나 조정지 등 치수시설을 좀더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조정지 네트워크로 국지성 집중호우에 효율적으로 대응함.
- 하수도 정비는 빗물배제 기간시설 정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우수정비 Quick Plan’에 근거해 침수피해를 조기에 경감하도록 함. 하수관거의 우회로(bypass)나 저류관을 설치하고 간선 하수관거의 잠정 저류시설로 이용함.
- 빗물유출 억제를 위해 차도에 투수성 포장이나 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하고 빗물유출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 ‘종합치수기본계획’(가칭) 수립과 이에 기초한 유역대책을 추진함.
- 하천·하수도 제휴로 차기 정비수준을 향상하고 하천·하수도 시설 제휴로 조정지·저류관·펌프운전 조정 등 치수시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함.



하천·하수도·유역대책 제휴에 의한 정비수준 단축



하천·하수도 제휴에 따른 침수대책 개념

– 비구조적 대책

- 홍수정보 공유시스템을 확충하고 인터넷, 케이블 TV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해 주민에게 기상 및 홍수정보 제공
- 침수현황도, 침수예상구역도, 대피지도 등의 재해지도와 하수도 우수 배수 정비 현황 공표
- 피난방재체제를 정비·확립하고 도시형 수해를 홍보하며 수해방지를 위해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해설 및 평가>

- 구조적 대책 중심의 기존 수방대책에 비구조적 대책을 통합하고 구조적 대책에서는 하천과 하수도의 제휴와 유역대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 홍수 분담 및 균형체제를 강화함.
- 수방시설 설치뿐 아니라 관리·운영 측면을 강조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에 따라 하천과 하수도 등의 제휴 및 설계용량 상향 조정을 조기에 추진함.
- 홍수정보 통합, 재해지도 적극 활용, 정보전달 수단 다양화 등 비구조적 대책의 전방위 추진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는 민선 3기 동안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빗물펌프장 신·증설, 하수관거 개량, 역류방지시설 보급 등 수방대책을 적극 추진했음. 그러나 외수(하천)보다는 내수(하수도, 유역)에 의한 침수피해가 주류인 상황에서 제방과 펌프장 등 하천 중심으로 수방대책이 이뤄졌고 하천과 하수도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했으며 건축 및 토지이용 측면에서의 수방대책은 거의 없었음.
- 현 하천 및 하수도시설의 수방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01년 7월 14~15일 새벽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경기지역의 침수피해는 최고 310mm의 강우로 발생했으며, 관악구의 경우 시간당 156mm의 큰비가 내려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 침수피해 원인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수방시설이 적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되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것은 이미 설치된 빗물펌프장, 수문, 저류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관리·운영 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함.
- 침수피해가 심한 연도를 중심으로 침수흔적도 등이 구축돼 있으나 지도의 정확성, 사유재산에 끼칠 악영향 등의 이유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벤치마킹 시행방안>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과 연계해 외수와 내수 양 측면을 유기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홍수 분담 및 균형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유역대책을 추진하도록 함.
- 우수(雨水) 유출 저감시설(저류시설, 침투시설) 확충을 통한 유역의 홍수 분담과 친환경 수방체제 마련

- 국지성 집중호우와 대규모 홍수에 대비해 하천·하수도 시설 수방기준을 조기에 상향 조정하고, 건물과 지하공간의 수방기준을 마련
- 도시계획, 개발사업, 건축 등에 수해예방 측면을 더욱 강화하고 빗물펌프장, 수문 등의 과학적인 관리·운영체제 마련
- 하천 및 하수도 정보시스템 연계 및 활용도 제고

<벤치마킹 기대효과>

- 최근 강우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수해에 좀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재도시를 구현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서울의 경쟁력과 매력을 제고할 수 있음.
- 내수와 외수 양 측면에서의 홍수 분담, 과학적인 수방시설 관리운영 등을 통해 수해 리스크를 분산함.

/신상영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syshin@sdi.re.kr)

1. 2010년까지 1000만 해외관광객 유치 (상해)

○ 베이징을 포함해 중국 어떤 도시도 지금까지 해외관광객을 연 600만 명 이상 유치한 사례가 없었지만, 2006년에 600만 명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한 상해市가 상해 EXPO가 개최되는 2010년에는 해외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함.

- 만리장성 같은 유적지나 자연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해市가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대적 관광시설을 이용한 국제회의와 각종 축제를 개최한 것이 큰 역할을 했으며, 상해市의 개방적 분위기와 높은 서비스 수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상해市는 2006년 한 해 동안 500회의 국제회의와 300회의 국제엑스포를 유치했고 이는 상해市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했음.

- 상해市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는 19세기 근대건축물과 20세기 동방명주탑, 21세기의 진마오파샤(金茂大廈) 등 도심 속의 다양한 건축군(群) 및 역사 유적을 전시한 상해박물관이 있음.

(Chinadaily, 2007. 2. 1)

>>> 전문가 검토의견

- 상해市는 중국 경제의 중심지로 중국정부가 용의 머리라고 부르는 도시로서 동북아 허브자리를 놓고 서울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중 하나임.

· 위 상해市의 여건 및 가능성은 상해市의 경쟁력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임.
상해市 중심인 푸둥지구의 랜드마크인 진마오파샤는 높이가 세계 2위로 이미 경제 및 관광인프라가 잘 갖춰진 글로벌 도시로 발전했음.

· 중국의 개방성 및 국제화의 상징도시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잘 융합된 관광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上海市는 동북아 허브자리를 두고 서울이 아닌 도쿄와 홍콩을 주 경쟁자로 보는 등 서울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미약함.
- 아시아와 유럽 기업인 100명 중 48.8%가 上海市를 아시아 허브도시로 지목했으며 서울시는 7.3%에 그침.
- 서울시가 2010년 上海市의 목표인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넘어 1200만 명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및 국제화 확대, 관광특구 재정비 등 관광기반을 다지는 전략적인 관광정책을 먼저 추진하면서 전술적인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병행 추진해야 함.

/금기용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kykeum@sdi.re.kr)

2. 시정 질의응답 행사 개최 (런던)

○ 2007년 3월 7일 저녁 7~9시 치안, 교통, 환경, 2012년 올림픽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20분간 시민이 미리 제출한 질의와 시의원의 질문에 런던시장이 답변하는 People's Question Time 행사가 열렸음.

- 매년 2회 열리는 이 행사에 참가하려면 인터넷 등록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자메일을 보내면 되고, 채택되지 않은 질문도 6주 이내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공개홀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LBC 라디오방송 후원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런던市 홈페이지(www.london.gov.uk/webcast/pqt_20070307.aspx)에 게시함.

(www.london.gov.uk/gla/pqt/20070307/index.jsp?whatNav=mayor)

3. 대중교통 이용 소요시간과 실업자 수를 지도에 표시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통계청이 2007년 1월 도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대중교통 수단의 연계 실태를 조사해 발표함.
 - 모든 슈투트가르트市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정류장까지 걸리는 도보시간을 조사해 지도에 표시하고, 주거 지역에서 자동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까지 걸리는 시간도 표시함.
- 슈투트가르트市 실업자 수도 아주 작은 크기로 지도에 표시함.
 - 실업자 수를 200m 격자에 표시하기 위해 새로운 수확통계 기법이 개발됨.
(www.stuttgart.de/sde/menu/frame/ns_top_11021.htm)

4. 온라인 세무신고 프로그램 홍보 (베를린)

- 베를린市 경제부는 전자 세무신고 프로그램인 ‘엘스터’(ELSTER: Elektronische Steuererklärung)를 이용한 세무신고 건수가 2006년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2007년에도 더 많은 시민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임.
 - 市 경제부는 적극적인 홍보행사를 통해 많은 이용자가 엘스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편하고 정확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2007년 2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市 경제부 직원이 베를린 쇼핑중심지에서 엘스터 프로그램을 알리고 무료 CD를 나눠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 2007년 2월 21일에는 경제부 장관이 직접 엘스터 프로그램의 장점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엘스터 온라인’을 알리고 실제 사용자 수를 발표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2/16/72979/index.html)

5. 해외기업 유치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 (도쿄)

○ 도쿄都는 해외기업 유치를 촉진하고자 처음으로 해외기업 유치 세미나를 2007년 3월 중순에 런던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기로 함.

- 미국에 비해 유럽에서는 도쿄都의 기업 잠재력이 잘 알려지지 않아 도쿄都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가 많음을 홍보해 기업 유치를 본격화할 예정임.
- 도쿄都는 2005년 8월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 사업가 대상 종합상담창구를 개설했는데 매월 30건 정도의 신규상담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실제 해외 기업 유치까지 이어지지 않는 실정임.
-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쿄都나 일본 진출에 관심 있는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도쿄都의 매력을 소개하고자 함.
- 영국에서는 현지 금융기관, 독일에서는 현지 제조업체로부터 도쿄都에서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직원을 강사로 초빙할 예정임.
- 도쿄都의 중소기업 10개사가 현지에서 전시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2/20h2k200.htm)

<파리>

- 2007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기념행사로 여성을 테마로 한 전자음악 콘서트와 ‘조세핀 바커, 자유로운 프랑스인’ 주제의 국제 여성학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장애인이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가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추진
- 불법채류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임대 및 전차(轉借) 계약시스템 실시

6. 올림픽 준비 캠페인 실시 및 자원봉사자 모집 (북경)



- ‘북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찾기’ 캠페인에 출품된 2008장의 사진전시회에서 10장의 웃는 얼굴 사진이 ‘가장 아름다운 미소상’을 받음.
 - 이번 행사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 찾기, 즐거운 가정 찾기, 행복지수 올리기, 함께 사는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문화올림픽 건설본부가 주최함.
-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북경올림픽 자원봉사자 지원센터와 공청단 북경市 위원회(共青团北京市委), 북경 자원봉사자 연합 등이 ‘스마일 북경’ 운동의 하나인 ‘노래와 미소’ 자원봉사단을 모집함.
 - 자원봉사단은 노래, 합창 지휘, 연기 분야의 전공자나 재능 있는 사람으로 구성돼 공원, 지역사회, 대학, 공단, 농촌지역 등에서 휴일에 합창공연을 펼치고 ‘스마일 북경’ 주제가 노래교실을 여는 등 시민 봉사활동을 함.

(www.bjvolunteer.org)

(www.beijing.gov.cn/zfzx/tzgggs/bmtz/t730224.htm)

(www.beijing.gov.cn/rwbj/yjzs/hxsszq/t736580.htm)

디지털도시

7.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입법 참여 (북경)

○ 북경市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7년 1월 26일 제12회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2006년 활동 보고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입법활동 참여를 혁신사례로 발표함.

- 2006년에는 市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12개 조례 중 제정 6개, 수정 5개, 폐기 1개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 정신위생조례 등 8개 초안을 市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함.

· 300여 개의 시민 의견이 수렴돼 책자로 제작하고 검토를 거쳐 법안 작성에 참고함.

· 환경위생조례의 인터넷 공시에는 40여 개의 상세한 의견이 제안됐고 한 네티즌이 제안한 공공화장실 설치 제안이 채택돼 시정부문의 공공화장실 설치 통일 표준과 상세한 관리지침이 작성되기도 함.

-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입법 활동의 결과가 좋아 이를 강화할 예정

(北京日報, 2007. 1. 26)

<영국>

- 윌트셔주 케넛區, 주택개조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수수료를 135파운드 (약 25만 원)에서 100파운드(약 18만 5000원)로 인하해 줌.
- 런던市, 버스연료를 20%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와 시내버스에 독점 제공하기로 베네수엘라 정유회사와 계약 체결
- 절감된 예산은 저소득층 시민 25만 명에게 교통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데 활용
- 영국도시계획협회, 대형마트의 독점과 지역거리 사유화를 막고 지역 소매상을 전략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필요성 강조

복지 · 문화

8. 영화를 통한 도시 홍보 (런던)

- 런던영화단(Film London)이 주최한 ‘영화 속 런던’(Film London on Location) 전시회가 런던시청에서 열려 오랜 기간 많은 영화에 소개된 주요 명소에서 숨은 배경까지 다양한 런던의 모습이 공개됨.
- 런던市는 2003년 3월 런던개발청과 영국영화위원회, 민관협력 영상매체 교육기관인 ‘Skillset’ 담당자로 런던영화단을 구성해 영상매체 제작 지원, 산업 진흥 및 개발사업을 시행해 왔음.
- 런던영화단 설립 후 제작된 영화로 ‘브리짓 존스의 일기 2’, ‘클로저’ 등이 있음.
- 영화매체 산업은 약 20억 파운드(약 3조 7000억 원)의 시장규모를 자랑하는 신규 성장산업으로 런던市에만 총 10만여 명이 종사함.
- 영화 ‘노팅힐’ 한 편으로 엄청난 관광효과를 누려 문화·관광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www.filmlondon.org.uk)

(www.london.gov.uk/mayor/culture/film_london.jsp)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市는 오래전부터 도시홍보를 목적으로 영화를 활용해 왔고 1990년대부터는 런던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을 경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런던영화단이 주최한 ‘영화 속 런던’은 그동안의 성과를 모은 전시회로 영화 속에 비친 다양한 런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서울영상위원회를 조직해 서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촬영을 지원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 ‘괴물’이 있음.
- 이런 경험을 살려 서울시도 한류의 중심도시로서 서울을 알리는 ‘영화 속 서울’ 전시회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나도삼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9. 노인이 직접 참여하는 노인정책 구현 (베를린)

○ 노인의 이익 대변을 뒷받침하고자 독일에서 처음 제정돼 2006년 5월부터 발효한 베를린市 노인참여법 제정 후 처음으로 노인대표위원회가 구성됨.

- 베를린市 노인참여법은 크게 연대사회 발전, 노인이 품위를 지키면서 고령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회·문화·정치 부문에 베를린 노인의 적극적 참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市 통합·노동·사회부는 노인정책이 행정부만 짊어질 독자적 임무가 아니라 노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고 강조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2/08/72508/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은 보호와 지원대상일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참여 욕구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베를린市 노인참여법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공식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실행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정연령 집단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독립 법안의 필요성은 논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취약성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노인의 건강한 사회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서울시도 일부 노인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좀더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10. 레스토랑 학교 통해 교육·취업 기회 제공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 시의회에서 저소득층 청년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 취업을 돕기 위해 레스토랑 학교 교육을 제공해 350명이 첫 일자리를 얻고 일부는 이탈리아 등에서 요리전문가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유학 기회를 얻음.

- 상파울루 시의회는 2003년에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리옹, 상파울루市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신설해 교육생을 결혼식이나 칵테일 파티 등의 행사에 파견함.
·요리 교육 외에도 특별 요리, 포도주 교육, 서빙, 에티켓, 노동법, 위생, 보건, 시민정신, 외국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음.

- 레스토랑 학교 교육비는 무료이고 월 200헤알(약 8만 5000원)의 보조금이 나오며, 레스토랑이나 호텔, 카페 등에서 과정 이수 학생에 대한 수요가 많아 과정을 마치면 100%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음.

(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p=14558)

11. 학교 외 교육 위해 연 6억여 원 지원 (베를린)

- 베를린市 교육·학문·연구부는 베를린市 청소년·가족 재단과 민주적 청소년 재

단, 독일 아동 및 청소년 재단과 함께 2007년에도 베를린市 청소년넷(www.jugendnetz-berlin.de)을 계속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총 53만 유로(약 6억 3600만 원)를 투입하기로 함.

- 2001년 이후 약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市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市 전역에서 진행 중이고, 매년 12만 5000명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음.
- 베를린市 청소년넷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외 교육을 확대해 새로운 미디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임.
- 2007년에는 직업교육을 강조해 매스미디어 교육, 청소년 노동과 학교 간 협력, 직업 및 평생교육, IBM 후원프로그램인 'KidSmart' 지속, 베를린 청소년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직업교육과 각종 이벤트, 전문행사가 진행될 예정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2/08/72470/index.html)

12. 기초건강진단 무료화 확대 (일본 시가縣 고가市)

- 일본 시가(滋賀)현 고가(甲賀)시는 70세 이상 노인만을 무료로 했던 기초건강진단을 2007년 4월부터 19세 이상으로 확대해 무료화하기로 함.
 - 기초건강진단의 개인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300엔(약 1만 400원)인데, 고가市는 2004년 10월부터 650엔(약 5200원)으로 실시해 왔고, 이번에 시민 건강을 위해 무료화를 결정함.
 - 65세 이상 시민은 시내 30개 의료기관에서, 19세에서 64세 시민은 지역보건센터에서 검사받을 수 있고, 암검사 등을 추가해 하루에 실시하는 세트 검진도 기본 검사료는 무료임.
 - 고가市는 검진 대상자를 1만 1900명(이 중 70세 이상은 4000명)으로 추정하

고 있으며, 2007년 市 부담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500만 엔(약 4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京都新聞 인터넷판, 2007. 2. 28)

13. 장례식장 유적이 종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파리)

○ 파리 북동쪽 19구 오베르비에 거리(rue d'Aubervilliers) 104번지에 있는, 11세기에 지어진 시립 장례식장 유적 건물인 '르 104'가 종합문화공간으로 2008년 봄에 개장될 예정임.

- 전체 3만 5000㎡(건평 1만 5000㎡)의 공간에 현대시설물이 들어서는 종합문화공간에는 가로 200m 이상의 큰 홀에서 각 분야 예술가의 무대가 펼쳐질 계획인데 무대 높이를 달리해 홀 밖으로 열린 구조를 통해 관중이 각기 다른 무대를 구경할 수 있도록 설계됨.

- 근처 상업거리인 퀴리알 거리(rue Curial)에는 아마추어 예술가의 활동을 돕는 400㎡ 면적 3층짜리 건물도 세워질 예정임.

(www.104.fr)

(www.paris.fr/portail/Culture/Portal.lut?page_id=102)

-도쿄都, 도쿄도립대학과 연대해 2007년 5월부터 '국제관광도시 도쿄' 강좌를 개설해 관광인재 양성교육 실시

<북경>

-市 과학위원회, 2007년 2월 8일 '기업 연구개발기구 혁신' 좌담회를 열어 기업의 혁신능력 제고방안 논의

·2006년에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4개 연구개발기구에 950만 위안(약 11억 9000만 원) 지원

-북경과 상해를 잇는 고속철도가 2007년 4월 개통 예정으로 북경과 상해 이동시간이 10시간 이내로 단축될 전망

14. 학교와 스포츠단체의 협력 프로그램 지원 강화 (베를린)

○ 베를린市 교육·학문·연구부는 2006년 한 해 동안 35만 유로(약 4억 2000만 원) 이상을 학교와 스포츠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에 사용했으며 예년에 비해 많은 학교와 스포츠단체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밝힘.

- 279개 학교와 175개 스포츠단체가 협력해 약 4만 4000명에 이르는 학생 (남학생 54%, 여학생 46%)이 485개의 프로젝트에 참여

- 재정은 독일 복권에서 34만 2566유로(약 4억 1100만 원), 저축은행 프로그램에서 1만 5000유로(약 1800만 원)를 조달함.

- 프로젝트의 핵심은 ① 운동 및 스포츠 기회 제공: 개별 운동역량의 지속적인 심화와 새로운 운동기술 연마 및 통합 프로그램 후원, ② 운동재능을 찾고 장려, ③ 특정 주제(폭력문제, 건강)에 대한 특별 프로젝트, ④ 종일지도 프로그램 제공 등임.

- 총 485개의 프로젝트는 340개의 운동 프로그램, 106개의 재능발견 프로젝트, 13개의 특별 프로젝트, 26개의 종일지도 프로젝트로 구성됨.

- 市 교육·청소년·체육부와 市 스포츠연맹이 1993년부터 시작해 온 것으로, 종일지도는 학교와 스포츠 단체의 협력으로 2004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2/07/72376/index.html)

도 시 환 경

15. 제2세대 바이오 디젤 연료 실용화 추진 (도쿄)

- 도쿄都와 신일본석유주식회사, 도요타자동차주식회사, 히노자동차주식회사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제2세대 바이오 디젤 연료 실용화를 목표로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함.
 - 도쿄都는 2007년 1월 26일 ‘카본 마이너스 도시 만들기 추진본부’를 설치해 민간기업, 도민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대폭 삭감을 목표로 ‘카본 마이너스 도쿄 10년 프로젝트’에 착수함.
 - 이 프로젝트는 도쿄都가 선진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온난화대책 프로젝트의 제1탄임.
 - 신일본석유주식회사와 도요타자동차는 2005년부터 바이오 원료유의 수소화 처리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음.
 - 신일본석유주식회사가 시험 제조한 바이오 원료유 수소화 처리유(BHD: Bio Hydrofined Diesel)의 환경 성능을 도요타자동차와 히노자동차가 검증함.

- 2007년 중에 바이오 원료유 수소화 처리유(BHD)가 온난화대책으로서 얼마나 유효한지 검증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시험 운행시킬 계획이고, 일본 내 공급체제도 검토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2/20h264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수소첨가 공법은 석유화학 산업에 있어 연료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정 중의 하나임.
 - 수소를 첨가하는 방법으로는 긴 탄소고리를 자르고 그 자리에 수소를 결합시키는 방법, 탄소 간의 이중 결합을 파괴해 단일 결합으로 만들면서 그 자리에 수소를 결합시키는 방법, 황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수소로 대체하는 방법 등 다양함.
- 바이오 디젤은 콩이나 유채 등의 식물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합성한 기름이라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효과가 매우 큼.
- 바이오 디젤은 일반 경유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도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도심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함.
 - 다만 국내에서는 흑한기에 100%의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기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수소를 첨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료 품질을 개선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은 물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저감될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 산학연지원센터에서는 수송용 연료유의 품질개선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는 국내 업체가 개량된 연료에 대한 주행시험을 원할 경우 이미 시행 중인 바이오 디젤 보급사업과 연계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보급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줄 뉴스

<베를린>

-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Duetsch Plus'라는 어학테스트를 실시해 어학능력 진단
·어학부족 판정을 받은 아동은 어학 보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 市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 암 종류에 따른 병원별 치료실적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환자의 병원 선택 시 참고하도록 함.

16. 전력 손실이 많은 형광등 교체 (샌프란시스코)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市 뉴섬(Newsom) 시장은 2007년 2월 6일 샌프란시스코市 건물에 전력 손실이 많은 형광등 사용 금지 계획을 발표함.

- 샌프란시스코市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저에너지소비형 형광등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市 환경국은 새로운 형광등으로 모두 교체할 경우 7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1만 6500톤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 이미 환경국은 2001년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로운 형광등을 중소기업에 사용하도록 권장해 왔는데 이 계획은 기존 정책을 더욱 확대한 것임.

(sfgov.org/site/mayor_index.asp?id=52549)

17. 광공해를 막는 도로조명 계획 (영국)

○ 친환경적인 조명을 조성하고 광공해(Light Pollution)를 막기 위해 영국 고속도로국(Highways Agency)은 차량 통과량에 따라 자동으로 조명이 조절되는 제광장치(Dimmer Switch)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함.

- 이는 향후 도로조명을 좀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가 말함.

- 기존 도로의 어떤 위치에 제광장치를 설치하면 효과적인지 검토 중이며 보행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2007년 하반기에 연구할 계획임.

(www.rudi.net/node/13247)

18. 기후변화 실행계획 발표 (런던)

○ 런던시장은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런던 차원의 급진적인 '기후변화 실행계획'(The Mayor's 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표함.

-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4가지 실행 계획인 녹색주택(Green Homes), 녹색기관(Green Organization), 녹색에너지(Green Energy), 녹색교통(Green Transport)으로 구성됨.

- 런던시장은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2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약 156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함.

(Planning, 2007. 2. 27)

- 뉴욕市, 2005년부터 市 미디어그룹을 새로 구성해 미디어를 총괄하도록 함.
- 市는 케이블 방송국 5개와 FM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 중임. 뉴욕 시정뿐 아니라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미국 전역에 방송

<브라질>

- 쿠리치바市, 시민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굿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
- 3주 동안 경영, 마케팅, 판매, 재정 교육을 무료로 실시
- 상파울루市, 축제 및 이벤트 질을 향상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 증가
- 2007년 카니발 삼바공연장 G 관람석의 경우 차별화된 환대 서비스, 좌석용 쿠션, 사물함, 공연 중간에 레저 프로그램 등을 제공. 카니발 정보제공 가이드도 배치

도 시 교 통

19. 무료자전거 이용서비스 제공 (파리)

- '파리이동플랜'의 하나인 '자전거 플랜'(Plan Velo)은 파리市의 교통량을 줄이고 향후 15년간 파리市 교통정책의 틀을 이루는 계획안으로 2007년 2월 12일 파리시 위원회에서 통과됨.

- 공개 입찰을 통해 '자전거 플랜' 사업권을 획득한 JC Decaux사는 파리시민이 무료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7년 말까지 1만 4501개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에 2만 600대의 자전거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하고 2007년 여름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리옹市는 '자전거 V' 시스템을 통해 현재 3003대의 자전거를 보유함.

(르몽드, 2007. 2. 12)

(eknews.net/bbs/zboard.php?id=France&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74)

>>> 전문가 검토의견

- 자전거는 승용차와 달리 개인이 소유해 이용할 때 자전거로는 갈수 없는 곳이 있거나 기상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이런 배경에서 파리市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무료 대여 서비스는 단순히 자전거 이용을 부차적으로 촉진하는 차원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리市 자전거 교통정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음.
- 파리市가 2만 대 이상의 무료자전거를 배치해 자전거 이용을 적극 추진하는 데에는 도로를 전면 재구성해 자전거 통행권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선행정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무료 대여 서비스를 서울시에 도입할 경우 레크리에이션 차원보다는 도시교통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이광훈 도시교통부 선임연구위원(kwlee@sdi.re.kr)

20. 주차공간을 찾는 운전자로 교통체증 유발 (뉴욕)

- 뉴욕市 브루클린區 파크 슬로프(Park Slope) 지역에서 운전자 중 46%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운행한다고 뉴욕市 대체교통수단 시민단체인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Transportation Alternatives)가 2007년 2월 27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맨해튼의 주요 교통체증 구간의 경우 운전자 중 28%가 도로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배회함.
·도로변에 주차된 차의 약 15%는 소화전 앞이나 병원 근처 구급차 전용 주차공간 등 주차금지 공간에 불법주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점주인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잠재고객 손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민 및 주변 상점주인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변 주차료 인상 및 주민 주차증 발급을 제안함.

(www.nysun.com/article/49401)

21. 강변도로 급행차로에 통행료 부과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는 주요도로인 치에테 강변도로 재개발 프로그램을 구상 중임. 도로 보수와 점검 등을 민간업체가 전담하도록 하고 향후 시내 다른 주요 도로도

비슷한 모델로 운영할 계획임.

- 市는 최고속력 110km/h 이상 허용하는 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13개의 고가도로를 시내 주요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구상하고 이를 통해 기존보다 60% 정도 속도를 더 내고 운전 시간도 평균 40% 단축할 것으로 기대함.

- 치에테 강변도로 급행차로에 톨게이트를 설치해 총 24km에 최고 6헤알(약 2400원)까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자동지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통행료는 급행차로에만 적용되며 운행 거리와 시간대, 날짜에 따라 통행료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새벽이나 일요일에는 통행료가 적게 부과됨.

(www.estado.com.br/editorias/2007/02/02/cid-1.93.3.20070202.38.1.xml)

22. ‘자동차 공용’ 사업자 모집 (도쿄)

○ 도쿄都와 (재)도쿄都 도로정비보전공사는 교통수요관리 시책으로 ‘자동차 공용’을 확산하기 위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음.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사업에 활용하도록 주차장을 제공함.

- 소수의 자동차를 다수의 이용자(회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공용 사업은 교통량 감축, 교통체증과 주차장 부족 해소, 배기가스 억제 등 도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됨.

(www.metro.tokyo.jp/INET/BOSHU/2007/02/22h2q100.htm)

23. 자전거 번호판 부착 의무화 (브라질 로레나市)

○ 브라질 로레나市는 자전거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법안이 2006년에 승인돼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자전거를 압수함.

- 압수된 자전거를 찾으려면 5헤알(약 200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은 번호판을 부착하는 가격과 같음.

·번호판은 흰색에 3개의 숫자와 3개의 글자로 조합돼 있으며, 가로 11cm 세로 7cm로 오토바이 번호판과 비슷함.

- 市는 자전거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자전거 적발 및 도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로레나市는 인구 7만 9000명의 작은 도시지만 자전거 보유율은 인구당 1대 꼴에 가까운 7만 대에 달해 브라질에서 자전거 천국으로 불림. 최소 3만여 명이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이나 출·퇴근하고 있음.

(oglobo.globo.com/sp/mat/2007/01/31/287637407.asp)

24. 도심 혼잡통행료 확대 시행 (런던)

○ 런던市는 2007년 2월 19일 도심 혼잡통행료 구간을 확대 시행함. 기존 구간에 서쪽 켄싱턴 및 첼시 지역을 추가함.

- 지역주민이 반대운동을 계속 벌이는 가운데 면세혜택을 요구하는 외교관저에서 납부 거부 의사를 표명해 제도 도입 전부터 갈등이 예고된 바 있음. 런던市와 런던교통공사는 언론의 우려와 반대운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한 듯 확대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맞불 홍보를 계속함.
- 혼잡통행료 도입으로 7만 대 이상의 도심 차량진입을 억제했다는 런던市의 주장과 체감 교통체증은 여전하다는 시민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제도가 확대 적용돼 혼잡통행료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0935)

도시계획·건설·주택

25. 아프리카 이민자 정착촌 재개발 추진 (뉴욕)

- JFK국제공항과 인접한 아프리카 이민자 정착촌인 자메이카가 앞으로 10년 동안 재개발될 계획에 따라 뉴욕市 도시계획국이 최근 자메이카 다운타운의 토지용도(조닝) 대폭 변경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함.
 - 자메이카 힐사이드 애비뉴 북쪽에서부터 110애비뉴 남쪽, 맨윅 익스프레스웨이 서쪽과 191스트리트 동쪽에 이르는 368개 블록의 토지용도를 변경해 대규모 상업용과 주거용 건물 신축을 유도할 예정임.
 - 도시계획국은 힐사이드 애비뉴에 7~12층짜리 건물 신축을 허용하는 등 총 2만 8000㎡에 달하는 사무실 공간과 3400세대 주택을 향후 10년 간 건설하고 이를 통해 93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움. 현재 공장지대인 에어트레인 지역에도 7~12층짜리 상업·주거용 건물 신축을 허용함.
 - 이 계획안은 개발업계의 대환영을 받고 있으며 뉴욕市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정치인과 주민자치기구는 과잉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 이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자치기구인 ‘커뮤니티 보드 12’는 앞으로 60일 안에 도시계획국의 토지용도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하고 이를 위해 두 차례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며 퀸즈버러청에서도 심사함.

(미주 중앙일보, 2007. 2. 14)

26. 다운타운 재개발 프로젝트 승인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약 1조 9000억 원을 투자해 다운타운 디즈니 콘서트홀 주변을 문화, 쇼핑, 휴식 등의 중심지로 재개발하는 ‘그랜드 애비뉴 프로젝트’(Grand Avenue Project)를 만장일치로 승인함.

- 현재 확정된 개발계획은 건축가 프랑크 게리가 맡은 46층과 24층짜리 2개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설임.

·투명 유리 소재로 지어지며 별 5개급의 오리엔탈 만다린 호텔과 고급 주거공간, 3만 7000㎡의 오피스 빌딩, 6만 5000㎡의 시민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임.

- 이 프로젝트의 1단계 공사는 2007년 10월에 착공해 2011년에 완공될 예정임. 이를 위해 관련 회사에 약 620억 원의 세계 혜택을 주기로 함.

(www.latimes.com/news/local/la-me-grand14feb14,0,5273884.story?coll=la-home-headlines)